

趙稀方の『報刊香港』 서문*

송주란 역**

신역사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문헌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근현대 이후로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은 일차자료로서의 문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괴한 것은 현대 간행물이 역사 자료이자,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동시에 또한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報刊香港(간행물홍콩)”이라는 명칭에는 두 개의 함의를 갖고 있다. 하나는 홍콩의 간행물이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報(신문)”에 실린 모든 홍콩의 “刊(간행물)”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본 저서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홍콩문학과 간행물과의 맥락을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간행물을 연구하는 것이 홍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중국현대문학 출신이다.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입문과정은 도서관에서 만청 이후의 1차 간행물을 읽는 것이었고, 이는 역사의 현장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만청의 가장 초창기의 선교사 간행물에서부터 중국당대의 문학 정기간행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읽었다. 이것은 문학연구에 있어서 문헌적인 기초를 닦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도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념을 세워주었다. 중국 내에서 홍콩문학사는 이미 많이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도 간행물 이외의 것과 관련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여전

* 趙稀方, 「歷史語境與文學場域」, 『報刊香港』(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2019).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heeya5280@hanmail.net

히 간행물의 실증적인 토대를 세우지는 못했다.

내가 홍콩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97”전후 시기였다. 이에 문화적 신분과 대도시의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이것이 바로 『小說香港(소설홍콩)』(2003)이다. 그 후, 홍콩문학은 중국내에서 이미 열기가 사그라들었고, 나 역시도 포스트식민 이론과 번역사 연구 등의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홍콩 간행물은 오히려 내 마음 속에 하나의 바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결국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홍콩 간행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홍콩 간행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홍콩의 문학과 예술 그리고 간행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지, 나의 조건과 정력으로는 다 섭렵할 수가 없다. 한발 물러서서 말해보자. 만약에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져서 자료집 한 권으로 편집해낸다 하더라도 나의 초심은 아닐 것이다. 내가 간행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료고증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단서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본 저서는 홍콩 초기 간행물에 대해 비교적 많은 고증과 교정을 제공해주며, 다른 역사적 위도를 보여준다. 즉, 본 저서는 뒤에 온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토론하지는 않으며, 시간의 큰 범주 안에서 시대적 맥락을 파악한다.

1853년에 창간된 홍콩 초창기 중문 간행물 『遐邇貫珍(하이관진)』은 일찍이 사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실 『遐邇貫珍』의 글은 화문으로 적혀 있고, 거기엔 많은 화인 작가들의 문장이 실려 있다. 특히 그 중의 몇 편의 산문여행기는 확실히 문학작품에 속하는 것이다. 『遐邇貫珍』은 식민 문헌의 하나이며 동시에 중서가 혼용되어 있어 홍콩문학이 “순수”하지 않다는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劉以鬯(류이창)에 의하면, 王韜(왕타오)는 1874년에 『循環日報(순배일보)』를 창립하였고, 문화면을 창설하여 홍콩문학의 기점을 세웠다 한다. 이러한 논조는 이미 홍콩문학사에서는 공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필자의 고증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한 사료의 잘못에 의한 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필자는 대영 도서관의 『循環日報』 필름을 찾아 열람한 적이 있

고, 홍콩대학의 두루마리 필름을 찾아 열람한 적도 있는데 이를 통해 『循環日報』가 창간되던 시기에 문화면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사실상 戈公振(거공진)이 말한 바와 같이 『循環日報』의 문화면을 창간한 시기는 1904년이며, 이 때 王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근대 사대부 가운데 王韜는 상당히 특별했다. 그는 줄곧 선교사를 위해 일했고 외국을 방문하여 서양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점점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도 깊이 받았다. 이런 연유로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때때로 모순으로 뒤엉킨 지점이 나타나곤 했다. 그의 문장은 포스트 식민 “협상”의 한 본보기로 언급될 수 있다.

阿英(아잉)의 『晚清文藝報刊述略(만청문예보간술략)』에 따르면, 홍콩문학의 가장 이른 시기의 문예 정기 간행물은 1907년의 『小說世界(소설세계)』와 『新小說叢(신소설총)』 두 종류이다. 그러나 阿英은 『中外小說林(중외소설림)』을 주목하지 않았다. 『中外小說林』은 시기적으로 일렀을 뿐만 아니라 간행 횟수도 갖추고 있었으며 그 횟수가 20회 이상이나 되었다. 홍콩에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학 정기 간행물이라 말할 수 있다. 『中外小說林』은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만청왕조를 전복하는데 주력했으나 홍콩 자신의 식민주의에는 오히려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패러독스였다.

『英華青年(영화청년)』은 袁良駿(위안량권)이 새로 발견한 간행물이지만 그가 주요하게 말하고자 한 것은 1924년도의 『英華青年』이었다. 오히려 『英華青年』의 전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英華青年』이 1909년에 창간되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오해가 있다. 『英華青年』의 창간 시기는 1919년이다. 『英華青年』 창간호에는 편집장 周夏明(저우샤밍)의 발간사가 실렸는데, 첫마디는 다음과 같다. “민국 8년, 음력 5월에, 홍콩 영화청년회는 개막식을 거행했다. 의식이 끝나고 잡지를 창간하기로 모의하였는데, 『英華青年』이라 일컬었다.” 본저서는 『英華青年』과 『文學研究叢(문학연구록)』을 결부시켜 중국 내지의 특징과는 다른 홍콩 “54”를 고찰하였다. 즉, 홍콩은 정치 운동에는 호응했지만 신문화운동에는 호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중국문화 보존을 호

소하였고, 중서의 융합을 희망했다. 이는 홍콩의 식민주의 특징이자 현대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 내지의 문화 급진주의에 대해 야기되었을 것이다.

1924년 8월에 창간된 『小說星期刊(소설주간)』은 줄곧 원앙호접과 간행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가 생각건대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실 『小說星期刊』은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간행물이다. 물론 원앙호접과 소설이 분명 있긴 하지만 고전소설, 백화소설, 시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카오, 홍콩지역의 문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즉 백화소설로 말하자면, 『小說星期刊』에 실린 중단편소설은 수량 상에 있어서 “홍콩신문단의 첫 제비”라 불리는 홍콩신문학의 선도자인 『伴侶(반려)』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그리고 문언소설 역시도 개인을 드러내거나 현대성을 반성하는 영역을 구비하고 있었다. 식민주의 특징을 비판하거나 “옛 문학의 현대성”을 우리가 다시 사고해야한다고도 하였다.

1928년에 창간되었고, “홍콩신문단의 첫 제비”로 귀히 여겨지는 『伴侶』는 홍콩문학사에서 늘 언급되지만 『伴侶』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伴侶』와 연관이 있는 侶倫(뤼룬)에 관한 기억은 사실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伴侶』는 문예류의 간행물이 아니고 유행과 생활에 관한 간행물이었다. 문예화는 제7호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9호는 찾을 수가 없다. 소설에서 보자면 『伴侶』에서 다루는 제재는 아주 편협한데, 기본적으로는 가정의 애정사 위주이다. 이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주로 하는 『伴侶』를 “통속문학”으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伴侶』를 중요하게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홍콩의 첫 번째 백화로 된 간행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신구문학의 대립은 사실 홍콩 초창기 문학의 주요 구성이나 짜임새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문언과 백화가 섞여 있는 『小說星期刊』이 실질적으로 홍콩의 초창기 문학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전쟁 전 홍콩문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고찰함에 있어서, 1933년에 창간된 『紅豆(홍두)』는 1930년대 유일하게 홍콩에 존재하는 다소

체계적으로 조직된 문학 간행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紅豆』에 대한 학계의 인식은 다소 혼란스럽다. 필자는 『紅豆』의 판본에 대해 고증하고 교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기본적으로 당시 홍콩의 좌익문학과 모더니즘이 병치되어있는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紅豆』의 “역사시”, “영국문단10걸 특집호”와 “집시 특집호” 몇 개의 번역 특집 역시도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필자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항전 초기 홍콩문단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茅盾(마오둔), 沉從文(선충원), 許地山(쉬디산), 戴望舒(다이왕수)와 蕭紅(샤오홍) 등의 외지출신 작가의 창작이다. 둘째는 주목을 받지 못한 黃天石(황텐스), 平和(핑허), 張吻冰(장윈빙)과 龍秀實(룽슈스) 등의 홍콩 본토 출신 작가들의 창작이다. 셋째는 외지출신 좌익문단의 도움으로 배출된 홍콩의 청년 작가들의 창작으로, 劉火子(류취쯔), 彭耀芬(펑야오핀)와 黃谷柳(황구류) 등을 포함한 홍콩작가이다. 茅盾 등의 외지출신 작가들의 활동은 전국 항전문학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부터 홍콩에 있던 문단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고 자신들의 작품 또한 홍콩 독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文藝青年(문예청년)』 등의 간행물을 통해 홍콩 본토 출신의 문예 청년들을 길러냈고, 항전과 홍콩의 본토 생활을 반영하는 다수의 문학작품을 생산해냈다. 비록 좌익주류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홍콩에 있었던 신문학작가는 스스로 『天光報(천광보)』 등 간행물의 통속 창작을 통해 홍콩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줄곧 홍콩문학사에서는 첫 번째 부류를 중국대륙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작가, 두 번째 부류를 홍콩 본토 출신 작가, 그리고 세 번째 부류를 홍콩의 좌익 청년들이 쓴 작품으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별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피점령지의 문학은 여태껏 홍콩문학사에 진입하지 못했다. 필자는 홍콩 함락시기의 간행물과 창작에 대해 수집하고 고찰하기 시작했고, 戴望舒와 葉靈鳳(예링펑)에 역점을 두고 논의했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모두 매국노로 고발당했다. 본 저서는 간행물에 실린 문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戴望舒가 확실히 무고한 자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葉靈鳳의 경우

는 비교적 복잡하다. 후자는 피점령구에서 대량의 친일 행적에 관한 문장을 발표하였다.

항전 전후기의 홍콩문단은 대체적으로 홍콩문학의 절정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보기에 역사적 정황의 다름으로 인해 두 시기의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항전 전기의 홍콩문단은 인재가 수두룩하였다. 모두가 항일에 대한 목표로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통일전선을 이루었다. 문단은 백화제방을 이루었고 창작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항전 후, 특히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홍콩문단의 형세는 크게 달라진다. 신중국의 성립으로 문단을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서 좌익에서는 비평의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런 가혹한 형세 아래서 창작은 다소 위축되었다.

1950년대의 달러문화¹⁾와 반공문학은 문학사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본 저서는 이에 대해 그 기원을 새로 정리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문학사에서 언급된 『自由陣線(자유전선)』이 가장 최초의 달러 간행물이라고 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 후, 달러 반공 간행물은 1952년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다. 즉, 미국뉴스국인 『今日美國(금일미국)』은 1952년 3월 15일에 창간되었고, 『人人文學(인인문학)』은 1952년 5월20일에 창간되었으며, 『中國學生周報(중국학생주보)』은 1952년 7월 25일에 창간되었고, 아시아출판사는 1952년 9월에 창립되었다. 본 저서는 “友聯(제3세력, 미국)”과 『中國學生周報』를 중심으로 문화정치방면의 토론을 진행하였고, 또 아시아 출판사의 반공서적을 대상으로 그 역사적 서사 특징을 논의하였다.

1950년대 상반기에 홍콩문단에서는 綠背(녹배)문학²⁾이 주류를 차지했다. 1950년대 중기 전후로 모더니즘 문학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을 가장 대표하는 간행물은 1956년 2월에 세상에 선보인 馬朗(마

1) 美元文化: 미국 국회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홍콩에 “아시아기금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 자본으로 홍콩에서 간행물을 직접 출판하거나 문화 제반에 사용되었다. 미국의 자본으로 형성된 이런 문화를 달러문화라 한다.

2) 綠背文學: 일종의 달러문화를 말한다. 달러의 지폐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녹색 배경의 문학이라 일컬었다. 미국의 원조에 의해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량)이 창립한 『文藝新潮(문예신조)』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昆南(쿤난) 등의 사람이 창립한 『詩朵(시타)』(1955)에서 그 실마리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文藝新潮』가 종간되고 난 후, 昆南은 『新思潮(신사조)』(1959)를 창립하였고, 劉以鬯은 『香港時報·淺水灣(홍콩시보·천수만)』(1960-1962)을 주관하였으며, 李英豪(리잉하오)와 昆南은 『好望角(호망각)』(1963)를 창립하였는데 이 모두는 같은 사조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홍콩에서 모더니즘 사조는 단속적으로 이어갔으며, 끊어질 듯하면서도 다시 이어지기를 10년간 지속해나갔다. 1950·60년대 홍콩의 모더니즘은 홍콩문학을 새로운 역사의 요구에 맞게 창조하였다.

모더니즘사조 이외에도 1950·60년대 홍콩 문단의 기본적인 구조는 좌우의 대립이다. 좌우가 대립된 시기는 대략 1955년을 기점으로 말할 수 있겠다. 1950년대 초, 좌익문단의 역량은 쇠퇴하여 반공문학을 대적할 수 없었다. 대략 1955년부터 좌익은 간행물을 창설하기 시작했고, 우익과 맞서게 되었다. 『大公報(대공보)』, 『文匯報(문회보)』와 『新晚報(신만보)』 등의 간행물 이외에도 좌익 간행물로는 『文藝世紀(문예세기)』(1957-1969), 『海光文藝(해광문예)』(1966-1977), 『海洋文藝(해양문예)』(1972-1980) 등이 있다. 우익문예의 원류는 반공문예이다. 이 둘은 확실히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렇다. 만약에 극구 반공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입장만 다르다고 한다하더라도 반공문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저서는 우익문학의 기점을 1955년에 창립한 『海瀾(해란)』으로 본다. 그 후 비교적 전형적인 주요 우익 간행물로는 『當代文藝(당대문예)』(1965-1979)가 있다. 좌우의 양대 문예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대륙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문예의 정치성 그리고 홍콩 본토에 대한 무관심 등의 방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

“67 폭동”을 전환점으로 홍콩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좌익 간행물은 문혁의 방식으로 “영국의 폭정에 반대”했다. 내부에서는 “봉건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에 반대하여 신문의 문화면이나 경주마 소식과 경주견 소식을 삭제하였고 이에 소비가 급감하였다. 『中國學生周

報』 등과 같은 우익 간행물은 냉전 사고를 고집하였고, 또 이미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간되었다. 이어 1949년 이후에는 홍콩에서 출생한 신세대 홍콩인이 어른이 되었고, 좌우 대립의 정치적 구도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간행물 매체가 생겨났고, 새로운 본토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四季(사계)』와 『詩風(시풍)』이 창간되었다. “『大拇指(대무지)』-『素葉文學(소엽문학)』”와 『詩風』-『詩網絡(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두 개의 본토문학 파벌이 일어났다. 필자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홍콩 본토 의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홍콩 본토를 표현하는데 주목한 也斯(예쓰), 西西(시시) 등은 본토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홍콩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서혼용으로 한 黃國彬(황귀빈) 등도 역시 또 다른 홍콩 본토인이다. 마찬가지로 1972년에 창간된 『海洋文藝』는 좌절 한 후의 좌익의 연속이다. 1972년에 창간된 『四季』, 『詩風』과 『海洋文藝』 이 세 가지 종류의 간행물은 홍콩의 민간파, 고전파와 사실파를 형성하며 서로 병립하였다. 이 세 가지가 병립하는 가운데, 앞의 두 개는 광의의 홍콩 본토파로 여겨지며 이들은 분명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950년대 이래로 홍콩의 좌우 대립의 문화 국면은 세계 2차 대전 이래의 세계 양대 진영의 냉전 산물이었다. 당시 홍콩은 미국 태평양 전략 진지의 최전방으로서 존재했었다. 1979년에 이르러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에 냉전 국면은 자연적으로 와해되었다. 徐速(쉬수)의 『當代文藝』는 1979년에 끝이 났고, 『海洋文藝』는 1980년에 갑자기 중지되었다.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익 작가 대표 徐速와 좌익 문학 대표 阮朗(완랑)은 쌍쌍이 1981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상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한 시대를 끝냈음을 의미하고 있다.